"자성이 청정하면 깨달음 온다"

선과 화엄 하나되는 '성기사상' 제시

"상념 집착않을 때 여래지혜 나타나"

경전 속의 禪 사상 41

화 엄 경 ㊥

글쓴이

김 호 성

(동국대 교수)

선불교의 모토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直指人心)거나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라고 쓰여진 선불교의 깃발은 그같은 소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차원의 이해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이제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가에서 말하는 "곧바로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인간을 바라보는 선불교의 관점이 따스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죄도 많고, 업도 많은 존재인가? 아니면 성스러운 존재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고, 한 종교 안에서도 종파가 달라진다. 인간관에 따라서 수행법(구원론, 修證論)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식불교가 번뇌의 존재로부터 인간을 바라보고 수행체계를 세우고 있다면, 선불교는 '인간은 부처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름의 수행체계를 세워간다.

불교 안에서는 선불교 외에도 대표적으로 〈화엄경〉에서 인간은 청정하다고 말한다. 유식불교가 인간을 겉으로부터 보고 있으므로 상종(相宗)이라 불린다면, 화엄불교는 인간을 속으로부터 관찰하기에 성종(性宗)이라 이름된다. 이른바, 육조혜능이 "마음자리에는 본래 허물이 없고, 본래 어지러움도 없으며, 본래 어리석음도 없다"고 말하였을 때에도 인간을 저 깊은 속에서부터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선언이었다. 돈오(頓悟)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돈오의 가능성이고, 전제조건인 셈이다. 아니, 자성의 청정이 곧 깨달음이고 선이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자성청정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돈오를 주장하는 선불교의 입지(立地)는 없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불교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는 것이 〈화엄경〉의 성기(性起)사상이다. 성기라는 술어는 60권본 〈화엄경〉의 보왕여래성기품에서 유래한다.

"어떠한 중생도 그 몸에 여래의 지혜가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래지를 깨닫지 못한다. 상념에 집착하는 것을 떠나면, 일체지(一切智)·무사지(無師智)는 집착이 없으므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성기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기품'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의 백미는 미진경권유(微塵經卷喩)이다.

"예를들어, 불자여 삼천대천세계의 크기만큼 큰 경전이 있다고 하자. (----) 진실로 저 큰 경전이 하나의 극미(極微)의 먼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자. 저 하나의 극미의 먼지 속에 저 큰 경전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극미의 먼지 속에도 그만큼의 큰 경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물론, 〈화엄경〉의 성기사상은 그 기초에 여래장사상이 놓여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래장이 가능태를 나타내고 있다면 성기는 현실태를 말한다. 여래장이 잉태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기는 출산의 순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으리라.

먼지라 하였던 것이 사실은 알고보니까 경전이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곧 부처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화엄은 현실을 긍정하며, 현실이 곧 절대라고 본다. 선종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이며, '일체가 곧 진리'(一切皆眞)라 말하였던 데에는 이같은 성기사상이 그 배경에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기, 이 자리에서 선과 화엄은 만난다. 즉 하나가 된다(禪嚴一致). 여러 선사들이 화엄을 좋아했던 까닭이 여기 있는데, 한국선은 더욱 그같은 전통을 잘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㉒

현대인의 불법 ①

재가자도 해탈할 수 있다

오계 지키면 불법에서 멀어지지 않아

부처님은 비구, 비구니의 출가승들만을 상대로 가르치심을 펴신 것이 아니라 재가의 남녀 신도들을 위해서도 가르침을 베풀었다. 따라서 불교 공동체를 이루는 위의 사부대중들은 다같이 하나의 공통된 궁극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는 바로 열반의 증득이다. 열반은 물론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뜻하지만 해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동안은 불자일지라도 세상살이를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속세의 존재로서 겪어야 되는 갖가지 애로를 그들도 마찬가지로 겪어내야만 한다.

특히 재가의 불자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띤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해탈에의 길을 지향하고 싶어도 세속생활을 해야 하는 몸인지라 자연히 세속의 요구와 유혹 앞에 시달리기 마련이며 불심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가 신도들의 고충을 부처님이 모르시지 않았고 외면하시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재가신도들의 곤경을 충분히 알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재가자가 세속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답게 사는 길을 가르친 것이다.

재가불자인 우리들로서는 부, 쾌락, 성공과 같은 세속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골몰한 나머지 원래의 정신적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본 오계만은 범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법에서 퇴보하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재가자가 이루어낼 수 있는 높은 공부를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빠알리 경전에는 모범적인 재가 남녀들의 예가 무수히 실려 있다. 가장 저명한 이름들만 꼽아도 아나타삔디까, 위사카, 나꿀라의 양친 같은 훌륭한 남녀 불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재가불자들도 바로 금생 동안에 일체 고를 종식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절도있게 자기 단련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리고 생사의 궁극적 진리에 대한 통찰을 계발하겠다는 목표 아래 선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불법은 영구한 가치와 보편적 적용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를 위해서도 설해졌으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오늘날의 문제를 푸는데 적절한 가르침은 없는가 찾아봄직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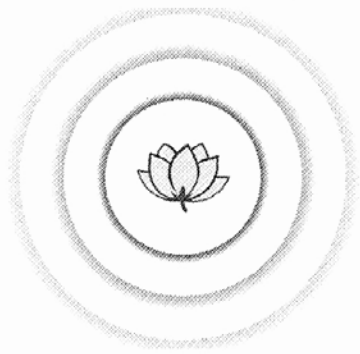
물질적 부를 지니는 즐거움
물질적 부를 누리는 즐거움
빚이 없이 사는 즐거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즐거움.

이것은 부처님이 아나타삔디까에게 재가자의 네 가지 즐거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확실히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도 적절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 네 가지 행복의 중요성을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만 있다면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쿼크



복잡한 하드론 내부구조 '쿼크'로 간단히 설명 양·중성자도 쿼크로 나타내

전호에서 살펴본 하드론에는 보즈 입자와 페르미 입자가 있다. 하드론 중에 보즈 입자인 것은 메존(mes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쿼크와 반쿼크의 쌍으로 되어있다. 하드론 중에 페르미 입자인 것은 바리온(baryon)이라고 불리는데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 보즈 입자와 페르미 입자를 구분하는 특징인 스핀수 조건을 다시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메존과 바리온들은 상호 작용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므로 그들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충돌 전 바리온의 숫자는 충돌 후 바리온의 숫자와 같다. 이를 바리온 수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드론들의 충돌은 메존들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메존 수 보존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1960년대 말, 스탠퍼드 대학의 실험 물리학자들은 하드론이 공간에서 실제로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양성자에다 고에너지의 전자 광선을 충돌시켜 결과를 살펴본 후 양성자는 일정한 구조와 공간에서 부피를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비록 하드론끼리의 충돌이 또 다른 하드론을 만든다고 하여도 하드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점입자가 아니라 더 섬세한 내부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머레이 겔만은 쿼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하드론의 내부 구조를 훌륭하게 설명하였다.

쿼크는 1/2의 스핀을 가진 양자 입자이다. 보통 소립자에서 그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량을 표시할 때는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량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그런데 쿼크는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량에 비교하면 분수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 쿼크는 향(flavor)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다. 즉, 위(up, 2/3)쿼크, 아래(down, -1/3)쿼크, 기묘한(strange, -1/3)쿼크, 매력적(charmed, 2/3)쿼크, 꼭대기(top, 2/3)쿼크, 밑바닥(bottom, -1/3)쿼크이다. 여기서 각각의 괄호안에 표시된 분수는 전기량을 나타낸다. 각각의 쿼크는 반쿼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과 쌍을 이루고 있는 쿼크의 전기량의 반대 부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반위(anti-up) 쿼크는 -2/3의 전기량을 가진다.

위, 아래, 기묘한 쿼크와 이들의 반쿼크로 그때까지 알려진 하드론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기묘한 쿼크 사이의 두드려진 차이는 질량이다. 즉, 위, 아래 쿼크는 가벼운데 반해 기묘한 쿼크는 이들에 비해 수십배 무겁다. 하드론 사이에 나타나는 질량의 차이는 이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었다.

쿼크 모형은 수많은 하드론들을 단 세 개의 쿼크와 세 개의 반쿼크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는 놀라운 단순성 혹은 통합성을 보여주었다. 하드론끼리의 충돌이 새로운 하드론을 만드는 문제는 후에 양자색역학에 의해 하드론 내부에서 쿼크들의 교환이 이루어져 새로운 하드론이 생성된다고 설명된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를 어떻게 쿼크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페르미 입자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이다.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는데 +1이라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를 끌어당겨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 안정한 원자를 형성한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규칙은 간단하다. 양성자는 하드론이면서 페르미 입자이므로 바리온이고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진다. 또한 양성자는 전기량이 +1이므로 위 쿼크, 아래 쿼크, 기묘한 쿼크를 잘 조합하여 전기량을 +1로 만들면 된다. 그러므로 양성자는 위(2/3) 쿼크, 위(2/3) 쿼크, 아래(-1/3) 쿼크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 지는데 이번에는 전기량이 0이다. 그러므로 위(2/3) 쿼크, 아래(-1/3) 쿼크, 아래(-1/3) 쿼크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숭(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